

열린 마당

설법교안

시론

'모래시계'의 역기능

폭력물 안방침투 경계한다

TV드라마 「모래시계」가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든 가운데 방송되었다.

권위있는 일간신문들마저 과격적으로 지면을 할애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모래시계」는 한국방송사상 '최대의 화제작'으로, 그리고 「최고의 시청률」을 집중시켰다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슬한 찬사속에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는 TV드라마 「모래시계」가 경이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찬사 못지 않게 이 드라마가 사회에 끼친 역기능 또한 그냥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다.

부도덕한 정치권력과 사회부조리를 고발한다는 전제가 깔리기는 했지만 「모래시계」는 너무 많은 폭력행위를 여과없이 오랜 시간 되풀이해서 방송함으로써, 과연 우리의 「안방극장」에 이토록 처참하고 잔인하고 소름끼치는 폭력이 허용되어도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었다.

제작자들 자제다짐

누구나 다 알고있듯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폭력집단은 그 집단이 빌붙어 있던, 이권에 빌붙어 있던, 이 사회에서 발본색원해야 할 흉악한 범죄집단일 뿐이다.

그런데, 바로 이 흉악 무도한 범죄집단인 폭력집단이 본의가 아니라 허더러도 멋있고 그럴듯하게 묘사되어,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을 로하여금 「멋있다」 '외리 있다' '잘 산다'고, 그릇 인식하게 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윤정광
(방송작가·출판협회 부회장)

그러나 TV드라마 「모래시계」는 드라마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닌 폭력장면, 잔인한 폭력행위를 너무 장시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칫하면 앞으로 TV화면에 걸출할 수 없는 폭력사태를 유발할 위험마저 드러났다.

만일 「모래시계」가 기록적이고 경이적인 시청자의 열광 속에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그동안 여과없이 쏟아놓은 무자비한 폭력장면이 용인된다면, 이미 앞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TV프로그램에서도 이와 유사하거나, 한술 더 뜨는 폭력장면이 무차별 방송될 우려가 있다.

폭력배들의 이야기는 선별된 관객만을 상대로 하는 극장영화로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온가족이 함께 시청하는 TV에서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23일 방송위원회가 주최한 「모래시계」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TV드라마의 폭력묘사가 집중거론 되었고, 안방극장인 TV의 폭력묘사가 청소년들에게 끼친 악영향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KBS, MBC, sbs의 제작책임자들도 무절제한 폭력묘사와 선정적인 묘사는 자제할 것임을 다짐하기도 했다. 아무튼 「모래시계」의 열풍을 계기로 제기된 TV의 지나친 폭력묘사는 방송의 역기능을 되풀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케이블TV의 본격적인 방송을 앞두고 KBS, MBC, sbs 등 공중과 방송과 케이블TV의 시청자 확보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리 시청률확보가 급선무라 하더라도 「안방극장」에서만큼 과도한 성의 노출과 성의 상품화, 그리고 지나친 폭력장면은 철저히, 엄격하게 규제하여 우리의 미증양속과 건전한 윤리도덕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청소년 폭력배 동경

그런데 「모래시계」에서는 폭력배의 폭력행사와 폭력집단의 행태가 여과없이 노출적으로 묘사되고, 더더구나 영웅시하는 분위기로 표현되어 한편으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폭력조직을 동경할 우려가 있도록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가공할 폭력집단의 위력을 모든 시청자에게 확인시켜, 법과 질서와 윤리도덕과 사회규범 위에 폭력이 군림한다는 쓸쓸한 패배감과 환멸감을 뿌리 깊게 확산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폭력과 권력이 결합해서 정치활동을 좌지우지하고, 폭력집단이 이권을 빼앗고 빼앗기며, 심지어는 사람을 유괴납치하고 청부살인을 하며 검사의 부인까지도 남치 함박하고, 집단으로 난동을 부리고, 각목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가운데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살인행위가

이렇게 만든다

원혜스님

포교원은 발원시대를 맞아 획기적인 종단 포교사업을 추진한다. 그중 하나가 「월간 설법교안(가칭)」발행이다.

포교원에서 발행하게 될 설법교안은 일선 사찰에서 사찰 운영과 신도들의 신생활, 그리고 각종 불사에 바쁜 스님들이 한결 법회 준비를 수월하게 하도록 편입된다.

우선 「설법교안」의 내용이 생활과 직결되어야 한다.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것은 불교계의 지도자들이 지니고 있는 교리의 현상성 때문이다. 생활과 무관한 관념적이고 신비적인 이론이 도통한 것처럼 과장되는 점이다. 특히 조계종단이 선종인 관계로 불교 수행의 일과와 오간가가 깨달음으로 치부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사찰에 따라 수준 차이가 있었다. 설법교안을

사찰운영·신도교육·정보등 담아 생활불교 이끄는 포교 길잡이로

따라서 「설법교안」은 전국 사찰스님과 포교사를 대상으로 보급된다. 포교원은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부터 포교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편집기획팀을 운영하고 있다.

5명으로 구성된 편집팀은 단행본, 연례본, 직능별에 따라 설립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은 5월경에 첫 선

활동을 물론 포교일선의 스님들이 갖추어야 할 정보 제공하게 된다. 다변화사회에 맞는 시사와 환경문제를 불교적으로 해석하고 대인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정보화, 다문화, 고학력화로 법회 설립의 질적인 고민에 처해있던 법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법회는 지역과

통해 전국 사찰의 법회가 체계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매월 한차례는 「설법교안」에 따라 전국사찰에서 동시에 같은 주제의 법회가 진행되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는 불자라면 어느곳에서도 체계적으로 수행활동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교원 포교부장」

포교사의 바람

현진스님

만시지탄이지만 포교원에서 포교사들을 위해 「설법교안」을 발행해 전국에 배포한다면 일선에서 포교당을 10여년 운영해 온 일선 포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무슨 내용을 어떻게 담고 나올지 자못 기대가 크지만 우선 바라는 점은 현장에서 포교사들

더로 알찬 법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내전에 설법자료집이 나왔었는데 그나마 도움은 되었지만 사용하기에 매우 미흡했다. 설법은 부처님의 경전을 보아 많이 인용해 풀어야 하는데 자료로 제공된 것이 빈약했다. 포교원은 어느 주제를 놓고 법



그리고 좀더 요구한다면 한층 다변화되고 급

사회문제등 경전 근거 해답제시 주제·분야별 다양한 내용 갖춰야

이 직접적이고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화된 자료집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설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나열하라는 것이 아니다. 「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주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 어느 경전에 어떻게 나와 있다는 것을 주제별로 자세히 자료 안내만 해주면 설법자들은 그것을 참고로 하여 자기 나름

문하더라도 다양하고 자유자재한 방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분야별 경전 구절의 제공이 풍부했으면 한다.

또한 전문용어의 내열보다는 쉽게 풀어쓰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설법자료가 되었으면 하고, 자료뿐 아니라 신도들이 법회 중 함께 소리내어 낭독할 수 있는 다양한 기도문도 들어있으면 한다.

변하여가는 현대인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시시각각 달라지는 시대조류를 예견해 어떤 방법으로 신도들을 이끌고 어떤 불교운동을 다같이 벌여 나가야할지 탁월한 식견을 담은 세밀한 자료제공의 역할로 포교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정다운 지침서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여의도 포교원장」

현대사회의 중추적 종교로서의 불교가 되기 위한 움직임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 불교계의 대표적 종단인 조계종의 포교원에서 매월 설법교안을 발간한다는 소식은 꽤 늦은 감은 있지만 눈길을 끄는 일임에 틀림없다.

조계종단의 기본방침은 교육·포교·역경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허한 메아리처럼 허공에 맴도는 구호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비구와 대처의 분쟁에서 비롯된 조계종단 내부의 분쟁은 종단 내부의 역량을 결집할 여유를 지니지 못했다. 지난해 일어난 종단의 혁신운동이 하나의 대세를 형성하여 포교원을 독립시키더니 「설법교안」의 발간이라는 가시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넓은 옷 벗는 계기 삼길

「설법교안」은 각 사찰에서 포교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라 한다. 내용상으로는 법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시사정보, 사찰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구체적인 대인상담법의 안내 등에 역점을 두리라는 것이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설법교안」의 발간은 그동안 조계종의 취약 부분인 몇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촉발하리라 예상된다. 첫째는 종단의 종지와 실행체계를 통일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체계적인 포교방법과 신도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는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대한 통일적 대응태세를 갖추고, 그에 맞는 포교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일선 포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상에서 열거한 예상 효과 이외에도 보다 많은 부문에서 「설법교안」의 효과가 나타나리라 본다. 이에 포교원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면서 몇가지 교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설법교안」의 내용이 생활과 직결되어야 한다.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것은 불교계의 지도자들이 지니고 있는 교리의 현상성 때문이다. 생활과 무관한 관념적이고 신비적인 이론이 도통한 것처럼 과장되는 점이다. 특히 조계종단이 선종인 관계로 불교 수행의 일과와 오간가가 깨달음으로 치부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수행의 긍정적 측면 이외에도 깨달음의 관념화 내지 신비화가 불교의 사회

성을 달라시키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리라 본다.

또한 이번의 「설법교안」 발간이 경시스럽고 경박하여 마땅한 일이지만 몇몇 사람의 독선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방지하고 미래지향적인 「설법교안」을 만들기 위해서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길 희망한다.

불교계의 일은 되는 일도 안되는 일도 없다는 것이 그동안 불교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조적인 중평이었다. 그만큼 일하기가 수월치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차제에 포교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이러한 의식 자체가 고단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모처럼 기본 소식에 조심스러운 교언을 덧붙이는 것은 일법제자들의 애초심에 다름 아니다.

세계화에 발맞춰 ...

초대합니다

대·행·스·님

부처님 뜻 받들어 중생과 더불어 고행하시는 대행스님의 대구·경북지역민과 호국영령을 위한 큰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지원장 혜계 합장
신도회장 김우룡

광복 50주년

대구·경북 지역민과 호국영령을 위한 대법회

“ 육신 생긴 게 화두요
내 마음이 화두요
내 생활이 화두이니
화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부지런히 뛰는 생활 속에
참선이 있다.”

— 대행스님 법어 중에서 —

- 일시 : 1995년 3월 12일(일) 오후 2시
- 장소 : 대구실내체육관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 후원 : 대구불교신도회 · BBS불교방송 · 현대불교신문 · 보훈청 · MBC대구 · 영남일보
- 문의전화 : (053)426-2779